

“숨’과 ‘의식’ 모티브로 인간 존재 탐색”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용좌 전남대 명예교수 ‘숨’ 펴내 퇴직 이후 모두 세번째 장편 발간 “내 정체성 100% 작가...창작 매진”

대학교수로 명예퇴직을 하고 벌써 3번째 장편 소설을 써낸 작가가 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창작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젊은 작가에 못지않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드러워진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일일지 모른다.

작가는 문득문득 “스스로에게도 왜 쓰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고 한다.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하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른 말로 된 소설들을 파먹는 하루하루가 하이에나 같은 삶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다. 그럴 때면 작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말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33회 PEN문학상 수상작가인 서용좌 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는 늦깎이 소설가다. 이번에 서용좌 작가가 장편소설 ‘숨’(문학들)을 펴냈다. 지난 2010년 대학에서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한 이후 벌써 장편만 세 권째다. 작가의 내면에는 늘 창작을 열망하는 ‘문학소녀’가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창작은 무언가를 토해내는 일이고, 학문은 그것을 썰어서 맛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더욱이 학문은 예술적 생산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 고약한 작업입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괜찮은 ‘판관’으로서의 식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년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명예퇴직을 했던 거지요.”

작가는 그동안 학문을 하느라 짝꿍 누르고 있던 창작에 대한 갈증을 풀어냈다. 이번 장편 출간 모티브에 대한 물음에, “내 말로 내 글을 쓰고 싶어 서”라는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대학에서 독문학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말 우리글로 작품을 쓰고 싶다는 욕구는 거의 ‘원형’처럼 드러워져 있었던

성찰하고 세상을 관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속제인데 타인의 내밀한 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 비상한 능력이다. 나남은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의 소리를 놓치기 일쑤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관조가 하나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 삶이 개연성의 연관이거나보다 ‘우연한 순간들의 임의의 조합’처럼 보이는 이유다. 전체적으로 소설은 완결된 서사의 형식보다는, 일테면 ‘파편들의 조합’으로 읽힌다. 주인공인 나남도 순전한 우연으로 조우하는 인물에게서 영감을 얻는다.

“일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연히 가까이 또는 멀리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별과 별 사이 행성의 간격입니다.”

작가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의 거리’ ‘별과 별 사이 행성의 간격’에 주목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숨’이 작동하는 것 같다. 소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다분히 시적이면서 철학적이다.

“삶은 늘 외롭고 불발입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또는 꿈도 꾸지 않기에 불발이지요. 그것을 확인하며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게 의도일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남이도 외로움과 불발을 깨달아 갑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독문학을 가르치는 독문학자로 살았다. 전반전에서는 학자로 살았지만 후반전인 지금은 온전히 소설가로 살고 있다. “나의 정체성은 100% 소설가”라는 말이 결코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중 3때 교지가 글이 실리면서 꿈꾸었던 문인에 대한 꿈을 온전히 실현해가는 중이다.

“소설은 나와와 소통이죠. 글을 쓰면서 반추, 되새김질을 합니다. 미리 플롯을 설계하고 건축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어쩌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겠지요. 글을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생을 훌쩍 건너가 버리고 말겠지요.”

한편 서용좌는 2002년 ‘소설시대’에 단편 ‘태양은’으로 전료되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표현형’ 등 5권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연극 ‘사평역’ 3~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각각의 사연을 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 펼쳐진다.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은 3-4일 오후 7시 30분, 5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극 ‘사평역’을 선보인다.

연극은 광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2010년도 전국연극제 은상을 수상했다. 푸른연극마을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다.

눈 내리는 산골에 위치한 사평역. 막차를 타기 위해 작은 간이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건강악

품과 건어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미스터 정과 이양대, 치매에 걸린 최 노인인 그를 보살피는 노총각 아들 종구, 미친 여자 등 모여든 사람들의 사연은 각기 다르다. 1970-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서민들의 애환을 간이역이라는 공간에서 펼쳐 보인다.

연출이자 작가인 오성완 대표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아픔과 편린,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있다”며 “가치의 진실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예매는 씨어터연비람 네이버 블로그와 푸른연극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있다. 무료관람. 문의 062-226-2446.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은 3-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극 ‘사평역’을 선보인다.

“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 꼭 이용해 주세요”

광주문화재단, 기한 내 사용 당부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인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31일까지 꼭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인출 여

시 불가능하다.

문화재단은 올해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생활 권장을 위해 패키지상품 개발과 전화결제 가맹점 발굴을 추진해 왔다.

한편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잔액은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7913-791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4일부터 카페 노블서 정기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은 4일부터 31일까지(오후 7시 30분) 제86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서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 독서, 철학, 영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요일(격주)에는 명예형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목요일 ‘인문덕후’ 시간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북독화-십인십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금

요일 ‘철학스터디’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베르그송 ‘시간과 자유-의식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진행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인문학 & 자유주제’를 토대로 ‘삶, 여성, 가족, 개인’에 대해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전 강좌 무료이며 기수별, 강좌별 등록.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전남 예술인 44명 온택트 교류전

광주문화재단, 15일까지

광주·전남 예술인 44명이 온택트 교류전을 갖는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와 전남 문화예술인 교류와 상생을 위한 온택트 교류전을 진행한다.

이번 교류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문화주간 사업 일환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담은 영상이 게재된다. 작가별 대표 작품 이미지를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그로잉 아트’(www.growingart.or.kr)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 참여작가는 강미미·강부영·김가영·문정환·박다은·손연우 등 15명과 예비 작가 금의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전남에서는 고미영·김민재·김연호·박진아·성혜림·윤성민·최진술 등 15명의 청년작가와 광대영

등 7명의 예비 작가가 참여했다.

온라인 전시공간에는 최근 진행된 비대면 크리틱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수정된 개인 작가별 포트폴리오가 게재된다.

비대면 크리틱에서는 기획자(비평가)와 교류전 참여 작가를 매칭해 작품에 대한 비평 및 방향성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크리틱의 기획자는 김민지(산수씨리 대표), 김선영(공간원 큐레이터), 김윤하(독립 큐레이터)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역량 강화 워크숍의 강사는 강대중(Space 1326 아트디렉터), 서영기(예술가), 서평주(공간원 대표) 5명이 참여했다. 문의 062-670-85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드림케어솔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알칼리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제니골드(귀금속카페)

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러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100세의로기 나주점

전남 나주시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전 건강체크기, 가정산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평상기전동수쿠터팬데믹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법심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광세탁소

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서안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평화이사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릫소파, 업소용제척천갈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갈이수리 및 제작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화장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정의로26-4번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공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오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